

포장협회 신입회원 가입

고품질 제품 생산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김 만 수

대하실업(주) 대표이사

폴리에스터필름을 주 원자재로하는 제품을 개발, 보급하고 있는 대하실업(주)(대표이사 김만수)이 (사)한국포장협회 신입회원으로 가입했다.

대하실업(주)은 1986년 설립된 이래, 1991년에 법인전환을 했으며 특수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연구인력을 기반으로 제품생산의 품질경쟁력과 주원자재인 폴리에스터 필름을 (주)코오롱으로부터 직접매입, 제조 가공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다.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면에서 원가절감에 따른 우수한 가격경쟁력으로, 국내 필름업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하실업(주)은 현재 식품포장용 필름과 산업용 필름제품등을 공급하며 선두적인 중소기업

업으로 성장해오고 있으며 내수시장은 물론 수출시장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대하실업(주) 관계자는 “향후에도 신기술 개발의 접합으로 지속적인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현재에도 상담과 수주가 진행되고 있다”고 발전을 예견했다.

또한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인천지역수출 1백억불달성 무역유공업체로 선정됐으며 김만수 사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한 모범중소기업인으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수상, 대외적으로도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앞으로 대하실업(주)은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자는 기업목표인 ‘Global Company’를 향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세계 제일의 polyester film textile accessory 등 제품 판매를 위해서 신기술 고부가가치제품으로 경쟁사와 차별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대하실업(주) 관계자는 “(사)한국포장협회가 앞으로 포장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회원사들간에 상부상조하는 거래질서확립과 침체된 포장업계의 저변확대에 힘을 기울여 줄 것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222-3
- 전화 : 032-563-2607
- 팩스 : 032-564-2607
- 주요제품 : PET, NYLON 필름 제품

(사)한국포장협회
내달 21일 코리아팩 2006 개최
식품전, 제약, 화장품 전시회도 선보여

(사)한국포장협회(회장 김선창), 한국포장기계협회(회장 최상식), 코트라, 월간포장, (주)경연전람 주최로 개최되는 한국국제포장기자재전(KOREA PACK)이 다음 달 21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최되는 포장전문전시회 KOREA PACK은 2003, 4년 산업자원부가 선정하는 국내 유망 전시회에 연속 채택된데 이어 금번에도 선정, 국제화, 대형화되고 가고 있다. 또한 국내 무역전시회 인증(AKEI) 획득을 통해 동북아를 대표하는 국제적 규모의 전문전시회로 거침없는 행보를 전개해 왔다.

특히, 포장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식품산업과의 비즈니스 환경제고를 위해 지난 전시회부터 서울국제식품전(SEOUL FOOD 2005)과 동시 개최, 관련산업 관계자들의 방문이 예상보다 크게 웃돌아, 참가사들의 호평을 얻은 바 있다.

이번 KOREA PACK 2006은 국제제약 화장품 제조 산업전(COPHEX 2006)과 동시개최, 식품산업 다음으로 비중이 큰 제약 산업과 화장품산업을 대표할 COPHEX 2006 전시회의 동시개최를 통해 KOREA PACK 참가사들의 상담효과를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KOREA PACK 2006 전시회는 세계30개국 5백개 사, 1천2백 부스 규모로 개최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문의 : 오선진 부장 전화 02-2026-86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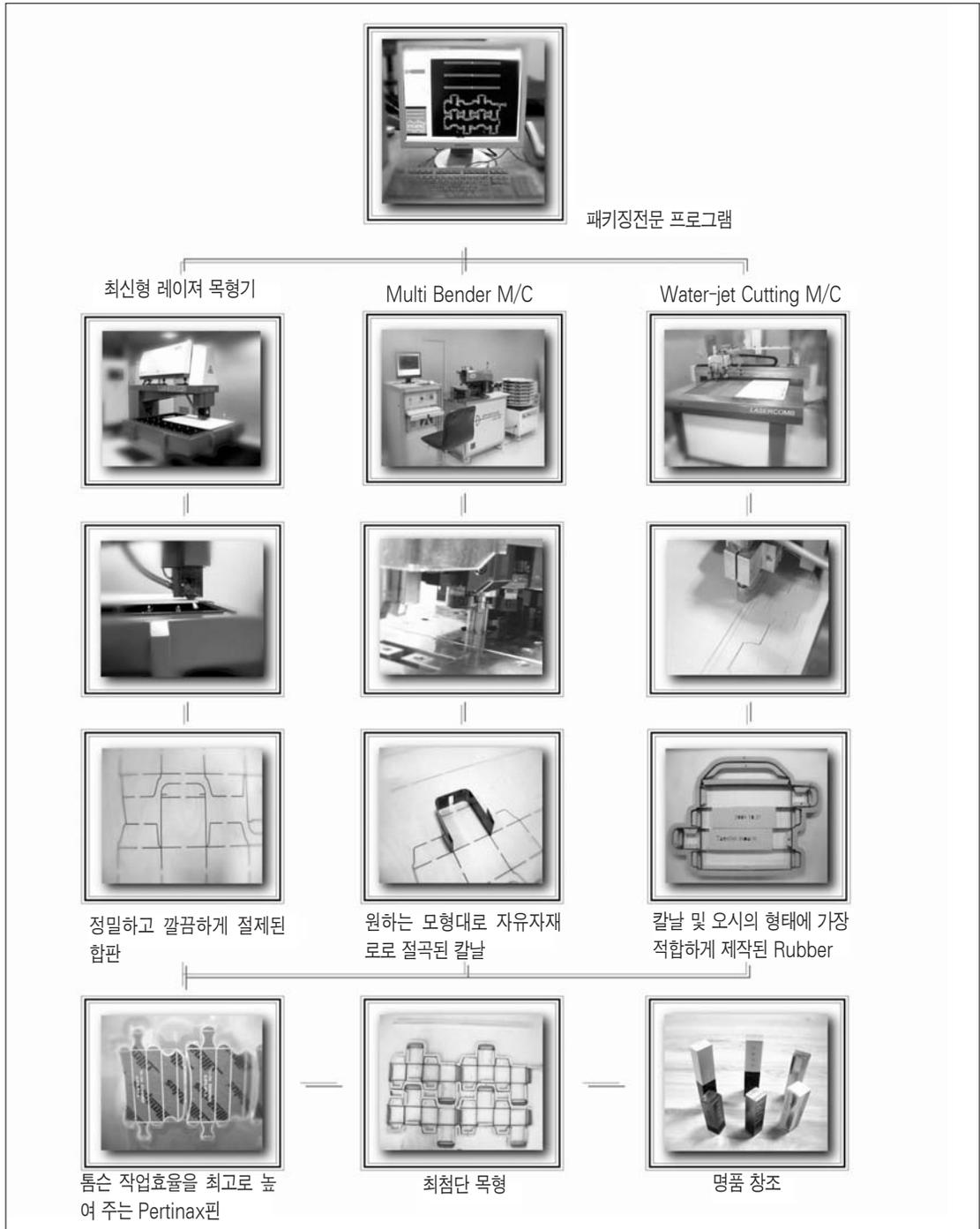
(주)태신인팩
최첨단 목형제작 시스템 구축
세계 최고 품질 생산 확신

충북 청원군에 위치한 (주)태신인팩(대표이사 서명현)은 금번에 독일 LASERCOMB社로부터 최첨단 패키징 전문 소프트웨어인 IMPACT Ver:4.1과 함께 Laser-Cutting M/C와 Water-jet Cutting M/C를 도입했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된 Multi Bender M/C을 함께 도입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정밀패키지 가공 분야에서 목형 제작 관련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 완성했다.

인쇄 공정과 함께 패키지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기술력을 요하는 톱슨 작업에서도 목형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디자인, 합판컷팅, 칼날 절곡 및 컷팅, 맞춤형 rubber 컷팅 등 핵심공정과 관련 최첨단 설비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레이저 목형기를 통해 절제된 합판은 기존과 달리 매우 정교하고 단단하게 작업이 돼, 칼날의 흔들림이나 오차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패키지 제품의 규격과 품질이 동일한 수준으로 꾸준히 생산될 수 있다.

또한 Water-jet Cutting M/C을 사용해 패키징의 특성에 맞는 정교하면서도 최적의 탄성지수를 가진 rubber를 원하는 모양으로 선택적으로 목형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특성에 맞는 최첨



▲ 최첨단 목형제작시스템

단 목형의 제작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톱슨 작업시 제품의 부위별 특성에 맞는 Rubber의 역할로 정교하면서도 지분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한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게 됐고, 여기에 Multi BenderM/C을 활용해 꺾이는 부분의 칼날을 이음매없이 제작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정밀하고 깨끗한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주)태신인팩은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유럽으로부터 선진기술을 습득한 전문인력들에다가, 기존의 작업성을 개선한 Pertinax판 사용 등과 같이 이미 구축해 놓은 또 다른 선진기술들을 연계, 목형의 정밀도나 패키지 제품의 품질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목형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 및 톱슨 준비작업 시간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주)태신인팩은 기존의 CTP(Computer To Plate)시스템 등 우수한 Prepress라인과 MAN Roland社의 최첨단 인쇄설비들과 함께, 옵셋인쇄 및 패키지 제조분야에서 국내최고 수준의 시스템과 기술력을 갖추게 됐다.

한국컨테이너폴(주)
서병륜 환경부 장관 표창장 수상
 비효율적 포장물류시스템 개선

한국컨테이너폴(주)(대표이사 서병륜)의 서병륜 대표이사가 환경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서병륜 사장은 낙후된 유통단계의 국내 포장물류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포장물류기기의 표준규격 체계를 확보하고, 이를 국내 포장물류에 적용, 비효율적인 포장물류시스템 개선 및 이를



◀ 한국컨테이너폴(주) 서병륜 사장 환경부 장관 표창장 수상

통한 환경문제 개선에 남다른 노력과 창의성을 발휘해 환경보전에 이바지한 것을 치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병륜 대표이사는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 및 물류기기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풀회사를 설립한 이후, 1, 2차 산업 전반에 걸친 제품(농수축산물, 가공식품,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유화, 비료 등)에 파렛트풀시스템과 컨테이너풀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동중, 이종업계간 공동사용이 가능토록 국내 및 아시아 포장물류기기의 표준규격 체계를 확립해 포장물류기기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시킨 공로를 높이 인정받았다.

또한 폐기물 발생억제와 감량을 위해 반영구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재질로 포장물류기기를 생산 임대해 준 후 사용이 완료되면 회수를 실시, 재사용이 가능토록 사용자에게 재공급을 실시했다.

그 결과 1회성 포장재 사용량 중 연간 1백50만톤 정도의 포장 폐기물 방지 효과와 포장 물류기기 공동사용을 통해 포장물류비 절감효과를 낳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장물류기기 공동사용 사업 추진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연으로부터의 자원채취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포장 폐기물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환경오염 방지와 물류비 절감을 통해 수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국내산업의 국가경쟁력 증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 높은 공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한국컨테이너풀(주) 관계자는 “환경부 장관 표창장 수상을 계기로 서병륜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

은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레이제한(주)
IT 필름사업 신사업 육성
 2009년 1조2천억 매출 목표

도레이제한(주)(대표이사 이영관)의 이영관 사장이 IT 필름의 신사업 육성과 신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를 올해 경영 키워드로 삼고 본격적인 공격경영에 나섰다.

이 사장은 “침체된 섬유산업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며 “올해부터 IT 필름사업을 신사업으로 적극 육성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T 필름은 현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광학용 필름의 국내 시장 규모는 연간 3백50억 원, 세계 시장은 1천6백억원 규모이며 국내 시장은 해마다 20% 이상, 세계 시장은 15% 이상 급성장하고 있다.

도레이제한은 이를 위해 올해 1천5백억원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총 4억달러를 투자한다.

오는 2009년 완공 예정인 경북 구미 2공단의 투명광학용 필름공장(연산 1만3천2백t 규모)은 올 6월이면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된다. 광학용 필름은 PDP 필터용 반사방지·전자파차폐 필름의 핵심 원재료로, 이를 국내에서 생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2009년 공장이 완공되면 매출이 현재의 배 수준인 1조2천억원대로 늘어난다”며 “섬유 부

문 매출 비중도 현 25%에서 10%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첨단 IT 필름사업 부문에서 코오롱, SKC 등과 경쟁이 예상되지만, 도레이세한은 일본 도레이의 첨단기술을 바로 도입해 적용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강조했다.

부직포나 폴리에스테르필름사업 부문도 중국이 급속도로 추격해 오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조만간 생산성을 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는 첨단기술을 도입, 적용할 생각"이라며 약간의 혁신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LogisALL
시무식 개최
ISO 9001/14001 인증획득

LogisALL(대표이사 서병륜)은 지난 달 2일 서병륜 사장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 및 ISO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시무식은 서병륜 사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박은규 부회장, 한국물류협회 신유균 부회장의 새해 인사로 진행됐다.

서병륜 사장은 "그 동안의 LogisALL 사업기반을 근간으로, 아시아 공동물류사업체로 발전하기 위해 안주하지 않으며, 더욱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고객중심의 경영, 전직원의 물류전문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LogisALL은 EQA국제인증센터 문재승 원장으로부터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이번 ISO 9001/14001 인증 획득으로 LogisALL은 대외적으로 인증표시, 인증기관명, 인증규격, 인증번호 등을 사용해 인증받은 기업임을 홍보할 수 있게 됐다.

회사관계자는 "LogisALL은 아시아 공동물류기업을 이룩할 수 있도록 올한해에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신체 위해제품 리콜 조치
사업자 부당광고 자료 제출 시한 단축

오는 12월부터 새로 출시되는 제품이 소비자 안전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판매를 금지하고 리콜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업자가 부당한 광고를 했을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시한도 앞당겨진다.

정부는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시행할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당장 올해 12월부터 현행 리콜 대상품목 39개 외에 신중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즉시 제품 판매를 금지, 파기하고 리콜을 권고하는 '신중 안전위해제품 신속조치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제품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되 추후 기준에 미달

정책기관

되는 제품은 정부가 리콜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품자율안전확인제'도 시행한다.

올해 안에 어린이,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이 일환으로 출산 및 육아 관련 서비스의 안전실태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했을 때 이에 대한 실증자료 제출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키로 했으며, 소비자 피해 자율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자율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시스템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농식품의 위해요소를 생산부터 포장단계까지 관리하는 우수농산물제도와 가공식품의 KS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상북도 농산물 이력서 도입 전자태그 이용해 정보 무선 식별

경북도가 농산물 원산지 위·변조 등을 막기 위해 농작물의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의 이력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농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다.

도에 따르면 오는 2월 중순 군위 하나로마트, 대구백화점, 동아백화점에서 '농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농산물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전자태그(RFID)를 이용한 것으로 소형 반도체칩을 이용해 농산물의 정보를 무선 식

별하는 것이다.

그동안 바코드를 이용한 농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는 있었으나 전자태그방식은 국내 처음이다.

도는 한국후지쓰 등 3개 기업과 함께 지난 해 5월부터 이 시스템 구축작업을 해왔다.

농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은 생산자와 생산방법, 포장업자, 유통과정 등의 정보를 수록한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인터넷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상품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생산과 유통과정을 역추적해 반품처리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농산물은 사과와 사과, 포도, 딸기, 완숙토마토, 방울토마토, 일반포도, 거봉포도, 참외, 마 등 9종에 우선 도입됐다.

여기에는 도내 친환경농산물 작목반 11군데가 참여했다.

상주 상생쌀작목반, 청송 주왕산사과마을, 의성 단촌시설원예작목반과 청암공동체작목반·꿈동산사과작목반, 성주 월향유기농작목반, 군위 가나안포도원과 친환경농조합법인, 영천 친환경포도연구회, 김천 오룡작목반, 고령 알림원영농조합법인 등이다.

도는 앞으로 이 시스템이 도입된 농산물 판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참여 작목반과 농작물도 늘리기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의성 마늘 등 전국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도내 농산물의 원산지 위·변조를 차단하게 된다"며 "현재 가격이 비싼 전자태그가 수년 이내에 보편화되면 개별 농산물에도 모두 부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대형포장 비닐 별도 분리 배출
재활용 활성화 계획

광주시가 올해부터 비닐류의 수거체계를 대폭 개선해 재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난 6월부터 과자·라면봉지 등의 필름류 포장재와 1회용 비닐류를 혼합 수거하고 있으나, 비닐류 중 대형 포장비닐에 대한 재활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가 등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대형 포장비닐을 별도 분리배출토록해 재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에 앞서 상가 등에서는 대형 포장비닐에 붙어있는 상표·바코드·가격표시 스티커를 제거하고, 흙이나 빗물 등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해따로 모아 배출시 해당구청(민간수집상)에서 이를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했고, 가정에서는 과자·라면봉지 등과 1회용비닐류를 이물질 없이 현재와 같이 혼합 배출하도록 당부했다. 이들 수거된 비닐류는 고체연료, 주차 블럭, 유화추출 에너지, 포장용 끈 등 각종 재활용품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환경부
전주시에 재활용산업단지 마련
1백71억원 투자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일대에 2만4천평 규모의 재활용산업단지가 들어선다.

환경부는 전주시와 함께 올해부터 2007년까지 2년간 총 1백71억원을 투자해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단지 안에는 공동물류시설과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이 들어서고, 전주지역의 재활용업체와 폐플라스틱, 전자제품 등 기술력을 보유한 15개소가 입주해 환경친화단지로 조성되며,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는 장기 임대방식으로 입주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으로 원자재 수입대체 효과, 물류비용 절감, 고용창출 효과 등이 발생해 연간 1백60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일본은 폐자원의 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키타큐수 등 23개소의 에코타운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과 미국 등도 재활용단지를 보유하고 있다.

식약청
HACCP 컨설팅비용 지원
식품안전수준 향상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올해 12월 1일부터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의무적용이 시작되는 어묵류 등 6개식품 제조가공업소와 김치류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율적으로 HACCP 적용하고자 하는 업소 중 중·소규모 업소에 대해 HACCP 적용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한다.

식약청은 1개 업소당 HACCP 컨설팅비용의

정책기관

50%에 해당하는 1천만원을 지원, 전체 40개 업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HACCP 의무적용 대상식품으로는 ▲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 빙과류 ▲ 비가열음료 ▲ 레토르트식품 등이다.

식약청은 '96년부터 그 동안 식품업소가 자율적으로 HACCP를 적용토록 추진하면서 적용업소에 대해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저리융자 지원, 세금감면, 군납시 HACCP 적용제품 가산점 부여, HACCP 제품 표시광고 허용 등 각종 우대조치를 부여해왔으나 식품산업의 영세성, 소비자 홍보 부족 등으로 HACCP 확대적용이 미진해 국가 식품안전성 기반 조기확보와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관리미흡시 위해 발생우려가 큰 어묵류 등 6개 식품부터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의무적용대상업소 중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규모 업소의 지원을 위해 이 컨설팅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품업소가 컨설팅을 받게되면 업소가 스스로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음에 필요한 시설관리기준 등 자가진단과 원료별, 제조공정별 위해요소분석, 관리기준과 모니터링 방법의 설정 등 HACCP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배우고 익혀 자사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HACCP 적용업소 지정을 준비함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식약청은 컨설팅 받는 업소와 관계가 있는 여러 협력사 등에도 HACCP 적용기술이 운용되는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식중독예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은 HACCP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식약청에 협조해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게 된다.

한편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은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라고 하는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 제도화한 용어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각국에 식품안전성 확보와 식품의 국가간 원활한 무역을 위해 도입·적용을 권고하고 있고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이 자국의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의무적용을 시행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으로 해당업소가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소비자 식탁에까지 전 공정에 대한 위해가능한 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현장 공정중심의 안전관리를 통해 사전 식품위해예방 관리시스템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제28회 국제환경기술전 개최
 환경 기술세미나 등 부대행사 마련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이치범), 환경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환경보전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제28회 국제환경기술전(ENVEX2006)이 오는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열린다.

우수한 청정기술 개발을 도모하고 국내외의 환경시장 개척 및 판로를 확장해 미래의 건전한 환경 산업 육성할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국제환경기

술전은 27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전문 전시회로 산업자원부가 지정하는 차세대 유망전시회이다.

제28회 국제환경기술전은 ▲ 환경기술관(수질, 상하수도, 대기,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음식물처리, 환경계측 및 측정기기) ▲ 친환경상품관(친환경건축자재, 친환경전자 및 가구제품, 실내공기질 관련제품, 친환경자동차, 친환경 인증마크 및 생활제품) ▲ 친환경에너지(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자연에너지) ▲ 환경복원 ▲ 기타(환경산업, 환경건설팅, 바이오환경, 친환경유기농, 관련제품 및 기술)의 전시관으로 구성되며 환경정책 및 기술세미나, 국제환경기술설명회, 환경기술개발사업성과 세미나, 수질오염총량제 정책설명회 및 신기술발표회, 기술이전설명회 등의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28회 국제환경기술전에 대한 문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nvex.or.kr>)를 참조하거나 환경보전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전화 : (02)2249-5265(내선 613, 629번)

환경부
환경지리정보 서비스 전면 개편
자료유통기간 단축

환경부 환경지리정보 홈페이지(ngis.me.go.kr)가 온라인서비스 체계로 바뀌었다.

2001년부터 대국민서비스를 시작한 환경지리정보 홈페이지는 기존의 오프라인(우편신청/자료작성/발송) 처리방식을 온라인(인터넷신청/관

리자 승인/다운로드) 서비스 체계로 개편하고 자료 유통기간을 일주일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환경부는 “지난 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환경지리정보 서비스체계 개선사업을 진행했다”며 “지난 1개월 동안은 대용량 지리정보 조회 및 다운로드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종 점검하고 보완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편된 환경지리정보 홈페이지는 기존의 일반사용자 일괄관리방식을 ‘기관 사용자’, ‘일반 사용자’로 구분했고 국가지리정보 체계 표준에 맞게 자료를 변환했다.

검색기능을 추가했고 온라인 체계에 맞게 DB를 최적화했다.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단순 화면보기 수준에서 ‘중첩·공간 분석’, ‘메타데이터 및 지번검색’ 등 화면보기 기능을 강화했다.

회원가입 절차도 간단해졌고 회원등록, 자료취득 승인 등 처리결과를 SMS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등 회원관리 서비스도 대폭 강화됐다.

가장 큰 변화는 웹상에서 장바구니로 자료신청을 하면 즉시 다운로드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기존의 자료신청, CD제작, 포장, 택배발송 등 일부일이 넘게 걸리던 자료처리 시간이 하루 이내로 줄어들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는 생태계보전지역 표시 등도 대부분 개선됐다.

그러나 ‘구글 어스’ 서비스나 개인 차량용 네비게이션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도면 지형도 위에 환경정보를 표시하는 등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